

ISSN: 2800-051X

Hankook **Research**

한국리서치 주간리포트(제235-1호)

여론속의 여輿론論

[2023 결혼인식조사] 결혼 준비과정 및 결혼 비용 부담,
혼전 동거 등에 대한 인식

2023. 06. 21.

담당자 이소연 연구원

전화 | 02-3014-1062
e-mail | lee.sy@hrc.co.kr

한국리서치 주간리포트

- 한국리서치가 기획하고 운영하는 자체 조사입니다.
- 격주로 시행하는 정기조사입니다.
- 특정 의제를 다각도로 조사하고 분석하는 심층 여론조사입니다.
여론의 현상과 함께 흐름을 추적하고, 여론 속의 민심을 파악하고자 합니다.
- 정기지표-기획조사 등으로 구성합니다.
- 정기지표는 국가, 사회, 개인과 관련한 국민들의 인식 추이를 제시합니다.
- 기획조사는 한국리서치 연구원이 기획하고 분석합니다. 주제에 따라 외부 전문가와 함께 기획하고 분석 및 보도를 함으로써, 여론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돋고자 합니다.
-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에디터들에게 문의하여 주십시오.

운영책임

이동한 수석연구원

전화 | 02-3014-1060
e-mail | dhlee@hrc.co.kr

연구진

정한울 전문위원

전화 | 02-3014-1057
e-mail | hw.jeong@hrc.co.kr

이소연 연구원

전화 | 02-3014-1062
e-mail | lee.sy@hrc.co.kr

일러두기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수응답 문항의 빈도는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응답 사례 수가 적은 경우 해석에 유의하여 주십시오.

1 이혼과 결혼 행태, 결혼 채널에 대한 인식

이혼과 재혼은 모두 할 수 있는 행동이지만, 동성결혼은 안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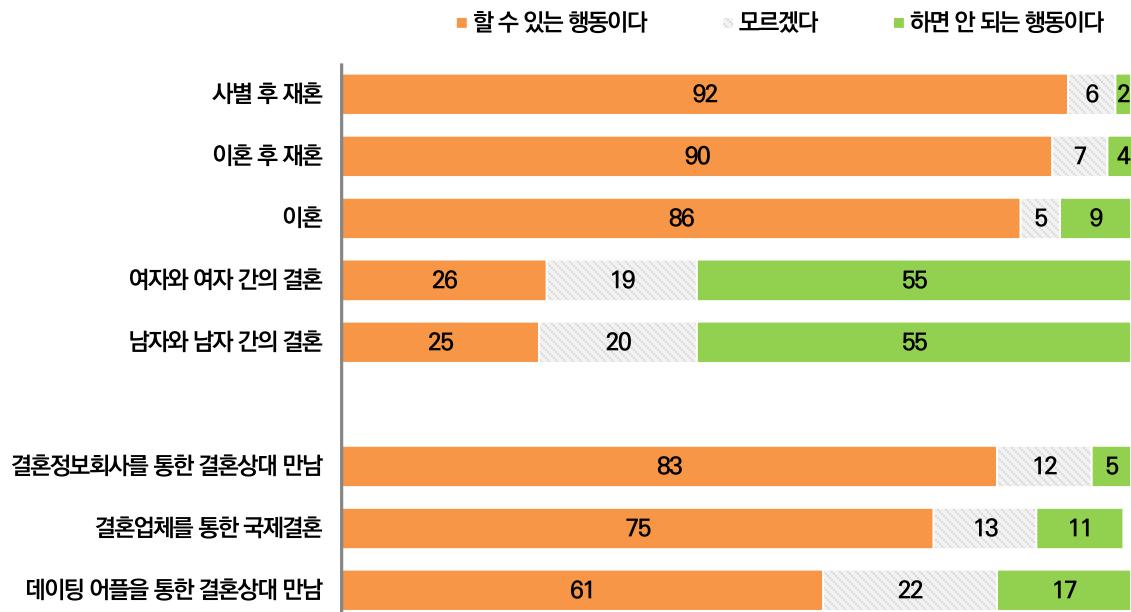
이혼과 결혼 형태, 결혼 채널에 대한 허용 인식을 물었다. 지난 조사(2022 결혼인식조사) 이혼과 동성결혼, 결혼 준비과정 및 결혼 비용 부담 등에 대한 인식에 이어 8~90%가 이혼이나 재혼 모두 할 수 있는 행동이라고 답했다(사별 후 재혼 92%, 이혼 후 재혼 90%, 이혼 86%). 반면에 여자와 여자 간의 결혼(55%), 남자와 남자 간의 결혼(55%)과 같은 동성결혼은 하면 안 된다는 인식이 과반 이상이다.

결혼할 상대를 만나는 채널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긍정적이다. 결혼정보회사를 통한 결혼상대 만남(83%), 결혼업체를 통한 국제결혼(75%), 데이팅 어플을 통한 결혼상대 만남(61%) 모두 할 수 있는 행동이라고 답했다. 데이팅 어플이란, 개인의 신상정보(본인 사진, 성별, 나이, 직업, 취미 등)를 기반으로 자신이 원하는 상대를 지목해 소통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기존에는 개인이 원하는 조건의 상대를 효율적으로 만나기 위해 결혼정보회사를 통하는 방식이 있었고 지금도 성행하고 있다. 이에 더 나아가 시·공간적인 제약없이 손쉽게 어플을 통해 상대방과 소통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기에 어플을 통한 만남에도 대체로 호의적이다.

이혼 · 재혼 모두 할 수 있으나, 동성 간 결혼은 안돼

결혼업체를 통한 국제결혼이나 결혼정보회사 · 데이팅 어플을 통한 결혼상대 만남, 할 수 있어

(단위 : %)



질문: 다음 각각에 대해 어떤 의견이십니까?

응답자 수: 1,000명

조사기간: 2023. 5. 26. ~ 30.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전 연령대 남성, 결혼업체를 통한 국제결혼과 데이팅 어플에 여성 대비 호의적 미혼 응답자, 데이팅 어플을 통한 만남에 호의적

성·연령과 상관없이 재혼, 이혼, 결혼업체를 통한 국제결혼, 결혼정보회사 혹은 어플을 통한 결혼상대 만남을 할 수 있다는 인식이다. 다만, 남성은 전 연령대에서 결혼업체를 통한 국제결혼과 데이팅 어플을 통한 결혼 상대 만남을 허용할 수 있다는 인식이 여성보다 높다. 남성은 비대면 매칭을 통해 새로운 상대를 만나는 것에 여성보다 더 열려 있는 편이다. 비교적 연령대가 낮거나(18~29세, 30대) 미혼인 응답자 역시 데이팅 어플을 통해 결혼상대를 만나는 것에 72%가 할 수 있다고 답해, 상대적으로 호의적이다.

전 연령대 남성, 결혼업체를 통한 국제결혼과 데이팅 어플에 여성 대비 호의적 미혼 응답자, 데이팅 어플을 통한 결혼상대 만남에 호의적

(단위 : %)

할 수 있는 행동이다' 응답	사례수 (명)	사별 후 재혼	이혼 후 재혼	이혼	결혼정보회사를 통한 결혼상대 만남	결혼업체를 통한 국제결혼	데이팅 어플을 통한 결혼상대 만남
					83	75	61
전체	(1,000)	92	90	86	83	75	61
성별							
남자	(496)	91	89	82	85	84	72
여자	(504)	93	91	90	81	67	50
연령							
18~29세	(166)	91	91	92	85	68	70
30대	(151)	91	93	84	87	81	71
40대	(181)	94	90	90	85	78	58
50대	(194)	94	92	88	78	73	58
60세 이상	(308)	92	86	81	82	77	55
성별x연령							
남자_18~29세	(87)	88	87	85	88	84	83
여자_18~29세	(79)	95	96	99	81	50	56
남자_30대	(78)	88	93	80	86	88	84
여자_30대	(73)	94	93	88	89	73	58
남자_40대	(92)	94	88	87	87	85	69
여자_40대	(89)	94	92	93	83	71	47
남자_50대	(98)	90	90	84	77	80	65
여자_50대	(96)	97	95	93	79	67	50
남자_60세 이상	(141)	94	87	77	86	85	68
여자_60세 이상	(167)	90	84	84	79	70	45
혼인여부							
미혼	(327)	93	93	89	86	74	72
배우자 있음	(575)	92	88	85	83	77	57
사별, 이혼	(99)	88	88	84	73	69	47

질문: 다음 각각에 대해 어떤 의견이십니까?

비고: '할 수 있는 행동이다' 응답 제시

응답자 수: 1,000명

조사기간: 2023. 5. 26. ~ 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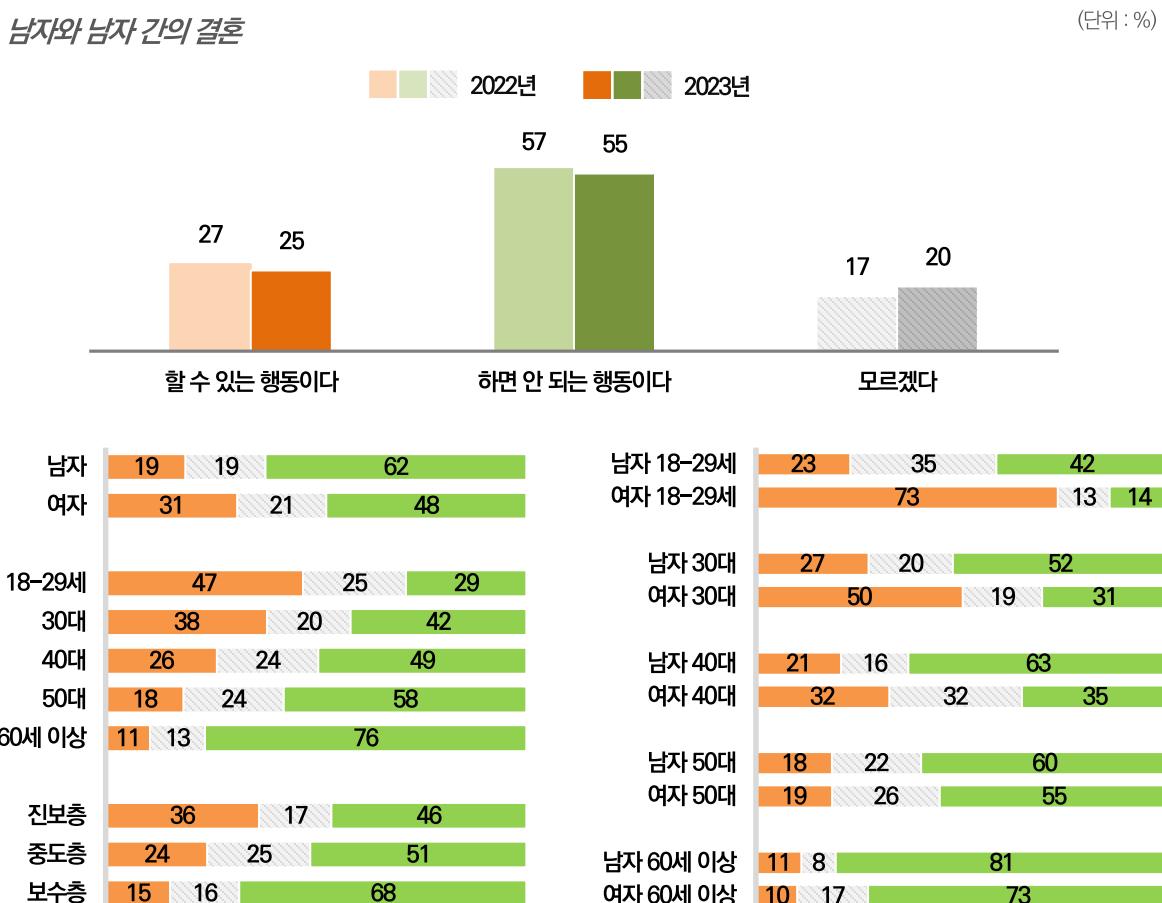
동성결혼은 '하면 안 되는 행동', 과반 이상(55%)

30대 이하의 젊은 여성은 과반 이상이 동성결혼에 호의적

동성결혼(남자와 남자 간의 결혼, 여자와 여자 간의 결혼)은 '하면 안 되는 행동'이라는 인식이 55%로 과반 이상이다. 이는 할 수 있다는 인식보다 두 배 이상 높다(남자와 남자 간의 결혼 할 수 있다 25%, 여자와 여자 간의 결혼 할 수 있다 26%). 작년 **22년 5월 조사** 대비 동성결혼을 하면 안 된다는 인식이 1~2%포인트 감소했으나(남남결혼 -2%포인트, 여여결혼 -1%포인트), 여전히 이를 허용할 수 없다는 인식이 주를 이룬다.

동성결혼에 대한 인식은 성, 연령, 이념성향에 따른 차이가 있다. 여성과 나이가 어릴수록 동성결혼에 호의적이다. 40대 이하 여성은 동일 연령대의 남성보다 동성 간 결혼을 허용할 수 있다는 인식이 높다. 특히 18~29세와 30대, 젊은 여성의 과반 이상은 동성결혼에 호의적이다. 진보 성향의 사람들은 보수 성향의 사람들보다 동성결혼을 할 수 있다는 인식이 두 배 이상 높다.

남자와 남자 간의 결혼 '하면 안 된다' 55%, '할 수 있다' 25% 30대 이하 여성은 남남결혼 '할 수 있는 행동'이라는 인식이 과반 이상



질문: 다음 각각에 대해 어떤 의견이십니까? –남자와 남자 간의 결혼

비고: 이념성향은 11점 척도(0~4점 진보, 5점 중도, 6~10점 보수), 이념성향 '모름' 응답 제외, 세부 특성별 결과는 23년 5월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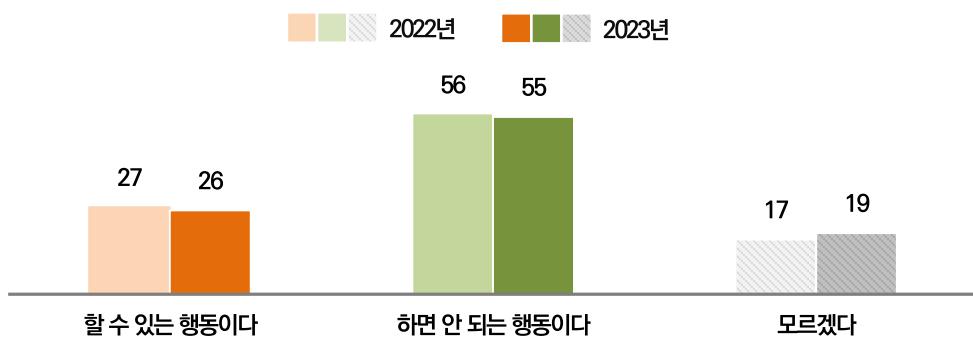
응답자 수: 1,000명

조사기간: 2022. 5. 20. ~ 23. // 2023. 5. 26. ~ 30.

여자와 여자 간의 결혼 '하면 안 된다' 55%, '할 수 있다' 26%
남남결혼과 마찬가지로 30대 이하 여성은 여여결혼 허용할 수 있다는 의견 과반 이상

(단위 : %)

여자와 여자 간의 결혼



질문: 다음 각각에 대해 어떤 의견이십니까? – 여자와 여자 간의 결혼

비고: 이념성향은 11점 척도(0~4점 진보, 5점 중도, 6~10점 보수), 이념성향 '모름' 응답 제외, 세부 특성별 결과는 23년 5월 조사

응답자 수: 1,000명

조사기간: 2022. 5. 20. ~ 23. // 2023. 5. 26. ~ 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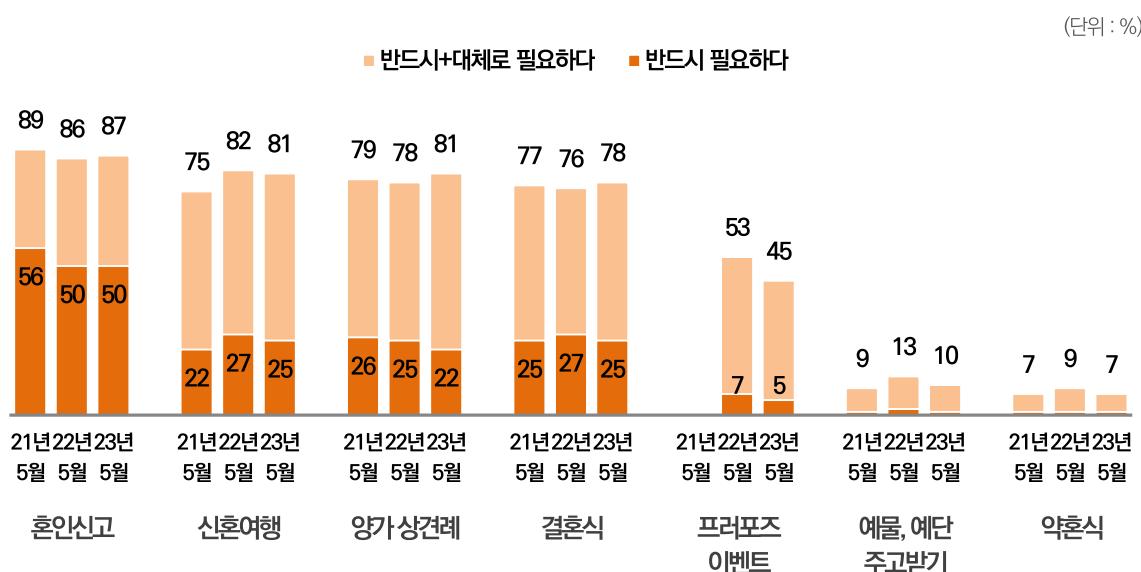
2 결혼 준비과정 및 결혼 비용 부담

예물·예단 주고받기와 약혼식이 필요하다는 응답, 3년 연속 10% 수준 프러포즈 이벤트 필요하다 45%, 작년 대비 8%포인트 감소

결혼 과정에서 혼인신고(반드시+대체로 필요하다 87%), 신혼여행(81%), 양가 상견례(81%), 결혼식(78%)이 필요하다는 인식은 80% 내외로 높다. 반면 예물·예단 주고받기(10%)와 약혼식(7%)이 필요하다는 인식은 10% 이하이다. 2명 중 1명은 혼인신고가 '반드시' 필요하다(50%)고 답한 반면, 예물·예단과 약혼식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인식은 1%로 3년 연속 2% 이하에 머물렀다([21년 5월](#), [22년 5월](#)). 결혼 준비과정에서 예물·예단을 주고받고 약혼식을 올리는 것은 그리 중요하지 않은, 의례적인 행위로 보고 있는 것이다.

지난 조사 결과에서 전반적으로 큰 변화는 없는 가운데, 프러포즈가 필요하다는 인식은 1년 전 대비 8%포인트 감소했다(53%→45%). 결혼 과정에서 필요한 여러 이벤트들 가운데 프러포즈의 필요성은 연령, 혼인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다. 18~29세(56%)와 미혼 응답자(51%)의 절반 이상은 프러포즈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젊거나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이 결혼을 그릴 때, 프러포즈에 대한 기대가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 과정에서 예물·예단 주고받기와 약혼식 필요하다, 3년 연속 10% 내외 수준



질문: 결혼 과정에서, 다음 각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비고: '프러포즈 이벤트' 항목은 2021년에는 조사를 진행하지 않음

응답자 수: 각 조사별 1,000명

조사기간: 2021. 5. 21. ~ 24. // 2022. 5. 20. ~ 23. // 2023. 5. 26. ~ 30.

18~29세와 미혼 응답자, 프러포즈 필요하다 '과반 이상'

(단위 : %)

'반드시+대체로 필요하다' 응답		사례수 (명)	혼인신고	신혼여행	양가 상견례	결혼식	프러포즈 (청혼) 이벤트	예물, 예단 주고받기	약혼식
전체	(1,000)	87	81	81	78	45	10	7	
성별									
남자	(496)	89	82	82	81	47	12	10	
여자	(504)	85	80	80	74	43	8	4	
연령									
18~29세	(166)	85	85	87	75	56	12	13	
30대	(151)	78	81	76	70	45	6	3	
40대	(181)	85	82	79	74	44	12	4	
50대	(194)	88	80	76	75	40	12	5	
60세 이상	(308)	94	79	84	88	42	9	8	
혼인여부									
미혼	(327)	84	82	82	73	51	12	10	
배우자 있음	(575)	90	81	80	81	43	9	6	
사별, 이혼	(99)	81	75	81	73	38	11	5	

질문: 결혼 과정에서, 다음 각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비고: '반드시+대체로 필요하다' 응답 제시

응답자 수: 1,00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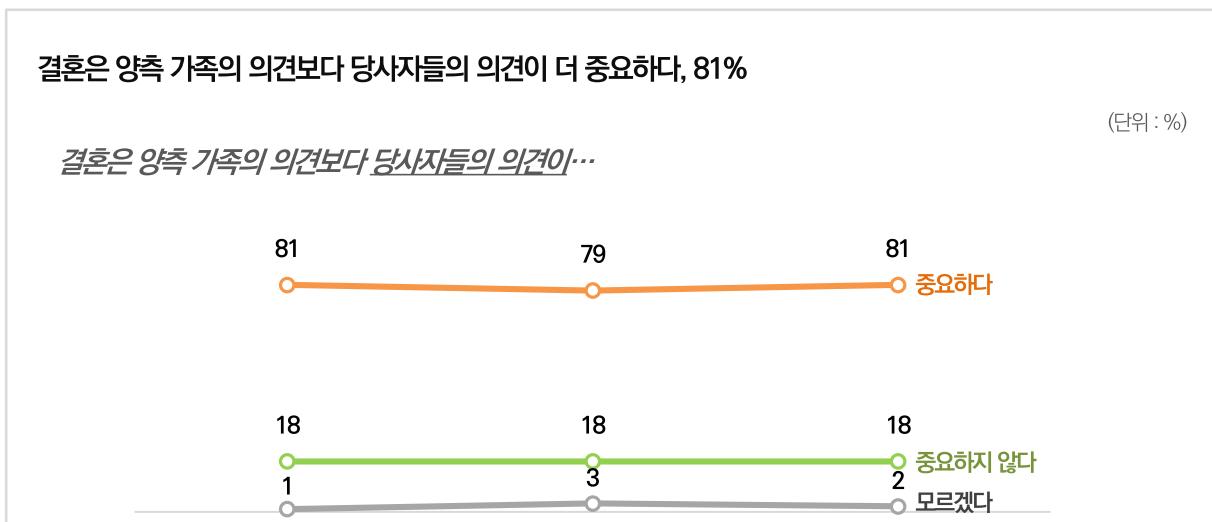
조사기간: 2023. 5. 26. ~ 30.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결혼은 양측 가족의 의견보다 당사자들의 의견이 더 중요하다, 81%

‘결혼은 당사자들의 의견이 양측 가족의 의견보다 더 중요하다’는 데 81%가 동의한다. 지난 [21년 5월 조사](#)를 시작으로 이번 조사까지 당사자들의 의견이 더 중요하다는 인식이 대다수이다.

성, 연령과 상관없이 결혼 당사자들의 의견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진다. 다만, 18~29세의 자녀 세대(64%)보다 50대 이상의 부모 세대(50대 87%, 60세 이상 89%)에서 당사자들의 의견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높다. 결혼 당사자라고 볼 수 있는 자녀 세대보다, 부모 세대가 결혼 당사자들의 의견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5060 부모 세대는 18~29세의 자녀 세대보다 ‘결혼 당사자 의견이 더 중요하다’는 인식 높아, 80%대

(단위 : %)

구분	사례수 (명)	동의한다	동의하지 않는다	모르겠다	구분	사례수 (명)	동의한다	동의하지 않는다	모르겠다
전체	(1,000)	81	18	2	전체	(1,000)	81	18	2
성별									
남자	(496)	81	17	2	남자_18~29대	(87)	67	31	2
여자	(504)	80	18	2	여자_18~29대	(79)	60	38	3
연령									
18~29세	(166)	64	34	2	남자_30대	(78)	84	14	2
30대	(151)	81	17	2	여자_30대	(73)	77	21	2
40대	(181)	75	24	1	남자_40대	(92)	77	22	1
50대	(194)	87	10	3	여자_40대	(89)	73	26	1
60세 이상	(308)	89	10	1	남자_50대	(98)	84	13	3
혼인여부									
미혼	(327)	74	24	2	여자_50대	(96)	90	7	3
배우자 있음	(575)	85	14	1	남자_60세 이상	(141)	90	10	1
사별, 이혼	(99)	79	16	5	여자_60세 이상	(167)	89	9	2

질문: 결혼과 관련한 다음 각각의 내용에 대해 어떤 의견이십니까? – 결혼은 당사자들의 의견이 양측 가족의 의견보다 더 중요하다

응답자 수: 1,000명

비고: 동의한다(매우 동의한다+동의하는 편이다), 동의하지 않는다(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동의하지 않는 편이다) 응답 제시

조사기간: 2021. 5. 21. ~ 24. // 2022. 5. 20. ~ 23. // 2023. 5. 26. ~ 30.

결혼 과정에서의 비용, 남녀 비슷하게 부담해야 한다는 의견 우세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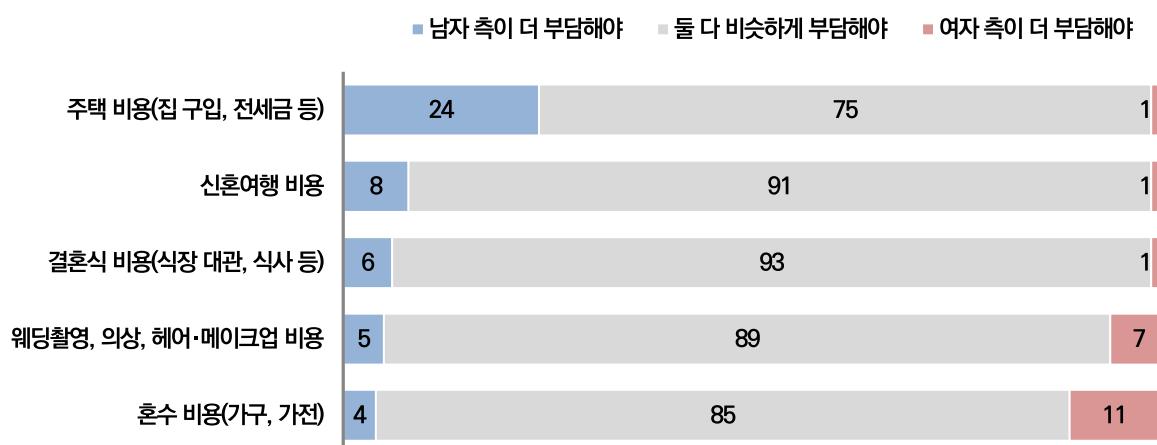
결혼 과정에서 필요한 비용에 대해서는 남녀가 비슷하게 부담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이는 작년(22년 5월)과 큰 차이 없는 결과이다. 결혼식장 대관과 식사 등 결혼식 비용(남녀 비슷하게 부담 93%)부터 신혼여행 비용(91%), 웨딩촬영·의상·헤어·메이크업 비용(89%), 가구와 가전 등 혼수 비용(85%) 모두 남녀 비슷하게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의견이 8~90%로 높다.

집 구입, 전세금 등 주택 비용에 대해서도 남녀가 비슷하게 부담해야 한다는 의견이 75%로 과반을 훌쩍 넘는다. 하지만 남자 측이 더 부담해야 한다는 응답이 24%로, 다른 항목 대비 3~6배 높다. 여자 측이 주택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인식은 1%에 그쳐 남녀 간 차이가 현저하다. 혼수 비용 역시 남녀가 비슷하게 부담해야 한다는 인식이 85%로 높다. 다만, 여자 측이 더 부담해야 한다는 결과가 11%로 다른 항목 대비 높고 남자 측이 더 부담해야 한다는 의견(4%)보다 약 3배 정도 높다.

연령대가 높을수록 주택 비용은 남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다. 18~29세는 15%만이 남자 측에서 부담해야 한다고 답한 반면, 60세 이상은 31%로 젊은 세대보다 2배 이상 높다. 나이가 어릴수록 남녀가 비슷하게 부담해야 한다는 인식이 더 높다(18~29세 83%, 60세 이상 69%). 다만, 2030세대와 50대 여성은 동일 연령대의 남성보다 주택 비용을 남자가 더 부담해야 한다는 인식이 12~20%포인트 더 높다.

결혼 과정에서의 비용 부담, 남녀 비슷하게 부담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해

(단위 : %)



질문: 결혼 과정에서 다음 각각의 비용을 어떻게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비고: 5점 척도(①+② 남자 측이 더 부담, ③ 둘 다 비슷하게 부담, ④+⑤ 여자 측이 더 부담)

응답자 수: 1,000명

조사기간: 2023. 5. 26. ~ 30.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hrcopinion.co.kr)

60세 이상, 주택 비용은 남자 측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인식 다른 세대에 비해 높아
2·30와 50대 여성, 동일 연령대의 남성보다 주택 비용을 남자가 더 부담해야 한다는 인식 높아

(단위 : %)

주택 비용(집 구입, 전세금 등) 부담	사례수 (명)	남자 측이 더 부담해야 한다	둘 다 비슷하게 부담해야 한다	여자 측이 더 부담해야 한다
전체	(1,000)	24	75	1
성별				
남자	(496)	21	78	1
여자	(504)	28	71	1
연령				
18~29세	(166)	15	83	2
30대	(151)	18	81	1
40대	(181)	23	74	2
50대	(194)	27	72	1
60세 이상	(308)	31	69	0
성별x연령				
남자_18~29세	(87)	6	91	3
여자_18~29세	(79)	26	74	0
남자_30대	(78)	11	87	3
여자_30대	(73)	25	75	0
남자_40대	(92)	28	70	2
여자_40대	(89)	19	79	2
남자_50대	(98)	21	78	1
여자_50대	(96)	33	66	1
남자_60세 이상	(141)	31	69	0
여자_60세 이상	(167)	31	68	1

질문: 결혼 과정에서 다음 각각의 비용을 어떻게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비고: 5점 척도(①+② 남자 측이 더 부담, ③ 둘 다 비슷하게 부담, ④+⑤ 여자 측이 더 부담), 주택 비용(집 구입, 전세금 등) 부담에 대한 결과 제시
응답자 수: 1,000명

조사기간: 2023. 5. 26. ~ 30.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3 결혼 전 동거에 대한 생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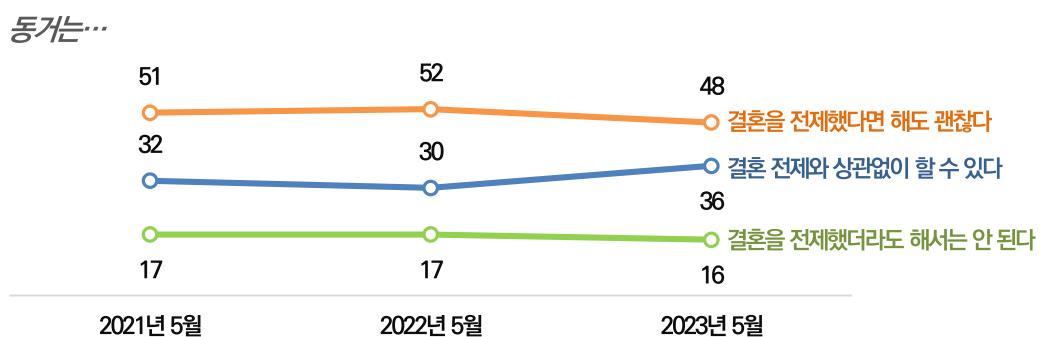
결혼을 전제한다면 동거해도 괜찮다, 48%로 작년 대비 4%포인트 감소 결혼을 전제하지 않아도 동거를 할 수 있다 36%, 6%포인트 증가

지난 [21년 5월](#), [22년 5월](#) 조사에 이어 이번에도 '결혼을 전제한다면 동거를 해도 괜찮다'는 인식이 48%로 절반에 달한다. 작년 대비 4%포인트 감소했으나 여전히 2명 중 1명은 괜찮다는 인식이다. 작년 대비 '결혼을 전제하지 않아더라도 할 수 있는 일이다'는 6%포인트 증가한 36%이다. 결혼과 무관하게 동거를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인식이 소폭 상승했다. '결혼을 전제해도 동거를 해서는 안 된다'는 16%에 그친다.

세대별로 혼전 동거에 대한 인식 차이가 있다. 60세 이상은 동거를 해야 한다면 결혼을 전제한 상태에서 가능하다는 인식이 다수이다(59%). 혼전 동거 자체에 부정적인 인식도 타 연령대 대비 가장 높다. 반면 18~29세는 결혼을 전제하지 않아도 동거를 할 수 있다는 의견이 과반 이상이다. 젊은 세대는 미래를 약속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자유롭게 동거할 수 있고, 60세 이상은 동거 자체에 부정적이고 해야 한다면 결혼이라는 전제 조건이 필수적이라는 인식이다.

2명 중 1명(48%), 결혼을 전제한다면 동거해도 괜찮다 결혼을 전제하지 않아도 동거 할 수 있다 36%, 작년 대비 6%포인트 증가

(단위 : %)



성별	사례수 (명)	결혼을 전제했더라도 해서는 안되는 일이다		결혼을 전제한다면 해도 괜찮다		계
		전체	(1,000)	16	48	
남자	(496)	14		50	36	100
여자	(504)	17		47	36	100
연령						
18~29세	(166)	7		40	53	100
30대	(151)	5		46	49	100
40대	(181)	10		43	47	100
50대	(194)	20		44	35	100
60세 이상	(308)	26		59	15	100

질문: 결혼 전에 한 집에서 거주하는 동거에 대해, 다음 중 어느 의견에 가까우십니까?

응답자 수: 1,000명

조사기간: 2021. 5. 21. ~ 24. // 2022. 5. 20. ~ 23. // 2023. 5. 26. ~ 30.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조사개요

구분	내용
모집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전국의 만18세 이상 성인남녀
표집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한국리서치 마스터샘플(23년 5월 기준 전국 88만여 명)
표집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지역별, 성별, 연령별 비례할당추출
표본크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1,000명
표본오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무작위추출을 전제할 경우,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집오차는 $\pm 3.1\%$
조사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웹조사(휴대전화 문자와 이메일을 통해 url 발송)
가중치 부여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지역별, 성별, 연령별 가중치 부여(셀가중) (2023년 3월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 인구 기준)
응답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조사요청 10,311명, 조사참여 1,510명, 조사완료 1,000명 (요청대비 9.7%, 참여대비 66.2%)
조사일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2023년 5월 26일 ~ 5월 30일
조사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주)한국리서치(대표이사 노익상)

한국리서치 주간리포트

여론속의
여輿론論

Hankook | Research

